

시정질문 자료

(서면질의)

◇ 경부선 철도교 확장 대책에 관하여

김 상 조 의원

경부선 철도교 확장 대책에 관하여

우리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후 내륙 최대의 첨단수출 산업의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하였고, 또한 경부선 철도, KTX, 주변 고속도로망 개통 및 경부고속도로가 지역을 통과하면서 물류이동 및 인적교류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한국철도의 중추 간선노선인 경부선 철도가 구미시내를 관통하고 있어 각종 소음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도시계획 도로내 경부선 철도교는 일제시대인 1905년 경부선 개통당시에 수로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최근 급격한 산업화에 힘입어 산업단지의 물동량 증가와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대형아파트 건립 등 인구집중에 따른 교통량이 증대되어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각종 사고와 철도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미를 통과하는 경부선 철도교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상모사곡동을 비롯한 18개의 철도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 되고 철도개통 이후 보수나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철도교 주변이 침출수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는 등 침수현상과 교통사고 및 보행자의 인명사고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교통소음으로 인한 철도주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상모사곡동은 공단배후 지역으로서 주민의 60%가 공단근로자이며, 상모·사곡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우방, 화성, 보성, 화성드림파크, 세양청마루 등 APT의 급격한 증가로 약450세대가 입주하고 있을뿐 아니라 새마을 운동의 창시자인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위치해 년 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향후 사곡보성1차APT ~ 사곡고등학교 도로개설, 상모사곡 동청사 이전, 상모교회, 민방위교육장, 경북도 새마을회관 등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교통 병목현상 등 심각한 교통체증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을 통과하는 경부선 철도교 구간중 상모지역 워터피아 입구~ 상모고교 구간은 길이 23.1m, 높이 2.4m, 폭 3.5m로서 1905년 경부선 개통시 차량통행 보다는 배수로 용으로 설치되어 폭우시는 박스내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에 크나큰 위험이 잔존되어 있으나

현재 마땅한 대체 도로가 없어 폭 4m도 안되는 철도교 밑으로 상모고등 학생(1,118명)과 시민, 근로자 등 1일 170여대의 출·퇴근 차량과 550여명의 보행자가 기존 철도교를 이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상모동 입구 박대통령 생가방향의 철도교는 교각 10개(H=3.8, B=4.3)의 받침대가 녹물로 인해 교각벽면이 심하게 퇴색되어 있으며

또한, 오대동 국유림관리소 앞 ~ 남구미IC 구간에 있는 철도BOX는 노후된 시설과 빗물 고임 현상 등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매우 불편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구미시에서는 철도는 철도공사 소관이라는 이유로 또는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철도교 확장이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우회도로 신설 등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소외시키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물론 고객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측에서 노후시설물의 보수·보강조치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1차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해예방에 대한 사전점검, 주민의 생활불편사항 해결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도 관련 공사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등 국책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으나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우리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